

四小龍의 「에너지」

韓國,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四小龍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4 國의 경제발전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日本 아시아經濟研究所의 藤崎成昭씨가 「原子力文化」誌 11月號에서 대담형식으로 이들 國家의 특징, 경제를 뒷받침하여온 에너지의 실상, 장래 예측 등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다.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 최근 아시아 NIES(新興工業經濟群)가 경제성장의 촉점이 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공통점은 경제발전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도 1973년 오일쇼크이후—그 전에는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보여왔으나—그 절반인 5% 미만선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NIES의 나라들은 石油위기 이후에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年 10%를 넘는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잠재적 경제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네나라의 특징은 수출지향형의 공업전략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같이 對美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1985년 9월의 G5, 말하자면 「프라자」 합의 이후의 급속한 円貨절상으로 일본의 對美수출의 의존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통화는, 특히 円貨에 대해 절하함으로써 對美수출 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강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국내시장에 대해서도

그들 換率이 점점 下落됨으로써 수출이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1985년부터 2년간량 미국에 머물렀습니다만 처음 일본에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韓國車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 귀국할 무렵에 캘리포니아에 들렀을때는 도처에 韓國車가 깔려있었습니다.

NIES 네나라의 對美수출 합계는 올해의 5월~7월까지의 일본의 對美수출량의 74%까지 커졌습니다. 円高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이 낮아진 일본상품을 대신하여 아시아 NIES상품이 미국 시장에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하여 미국이 反撥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근간에는 이들 나라에 대하여 통화절상이나 시장개방의 압력이 차츰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韓國이나 臺灣도 日本과 마찬가지로 「에너지」資源이 빈곤한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NIES 여러나라의 프로필을 대충 소개하면 홍콩, 싱가폴은 도시국가이므로 에너지資源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에 巨大한 石油基地가 있으므로, 가령 石油쇼크가 발생하더라도 石油공급이 중단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韓國에는 「動力資源部」라고 해서 日本의 「資源에너지廳」에 相應하는 행정부서가 있습니다만, 싱가폴은 그러한 조직 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콩은 石油와 石炭을 수입해서 전기공급을 위한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1997년에 中國에 반환한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中國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中國정부도 홍콩근처에 原子力발전소를 건설하여 홍콩을 주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싱가폴이나 홍콩은 도시국가이므로 그전부터 에너지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韓國, 臺灣은 1960년대까지는 에너지資源의 對外的존도가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연상하면 짐작되리라 믿습니다만, 「非商業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薪炭類를 꼽을 수가 있지요.

1960년경 韓國의 통계를 살펴보면 이 薪炭이 全 에너지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것이 石炭이었습니다.

石炭자원은 남부에는 적었지만, 戰後開發이 진전되면서 현재는 난방용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연탄을 만들어서 온돌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연탄공급이 순조롭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工業化와 더불어 石油공급이 차츰 늘어났읍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대만 臺北市의 아침 출근광경.

서는 전력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서 수요공급의 균형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것을 石油火力의 도입으로 무난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資源의 수입의존도, 즉 해외자원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臺灣의 경우 1970년대에 접어들기까지는 薪炭, 石炭, 天然가스 등의 국내자원 의존형이었습니다. 그것이 工業化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히 수입의존, 즉 石油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나라는 현재 80~90% 가량의 수입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石油위기에 부딪치면 어려움을 겪겠지만, 당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資源을 쓸 수 있다는 자원 정책은 中國과 같이 국내炭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나라와 비교할 때 에너지가격에 대해 유연성있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韓國은 原子力發電소가 7基, 臺灣은 6基를 가동하고 있으며, 電力에서의 原子力발전 비율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1987년 통계를 보면 全 발전량에 대한 原子力발전의 비율은 韓國이 53.1%, 臺灣이 50%에 접근하고 있

는데...

原子力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伸長하고 있습니다. 工業化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너지 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해서 外貨를 벌어서 그 外貨로 중간재료와 에너지 등을 사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발전연료로서는 原子力, 수입炭의 비중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石油 주체로 부터 다른 電源으로의 多角化를 꾀하게 된 것은 제1차 石油위기 후인 1975~1986년 무렵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韓國, 臺灣이 같은 1978년에 原子力發電所를 가동하게 됐으니가 올해로 만10년이 되는 셈이군요.

1970년대 초에 제1호기의 건설계획이 태동한 이후로 原子力발전소 건설에 대한 급격한 진전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韓國, 臺灣 두 나라 정부의 생각은 原子力은 건설 코스트는 비싸게 들지만, 發電코스트가 싸다는데 착안하고 있는 듯합니다.

장차 韓國의 경우는 2천년대 전후하여 原子力이 약 50%, 또한 臺灣의 경우 장기전원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2천년대를 전후해서 原子力이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石炭생산도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천년대에 접어들면서 石炭火力이 수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韓國의 경우에도 原子力 다음으로는 石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韓國과 같은 工業화는 때로 「壓縮型」이라고 불리울때도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일본이 100년 걸려서 해낸 것을 韓國은 불과 10년에 해낸다는 것입니다. 原子力의 급속한 신장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政治面에서의 권위주의적 체제가 커다란 작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의 「보통사람 시대」라는 의미는 앞

으로의 民主化지향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와 같은 급속한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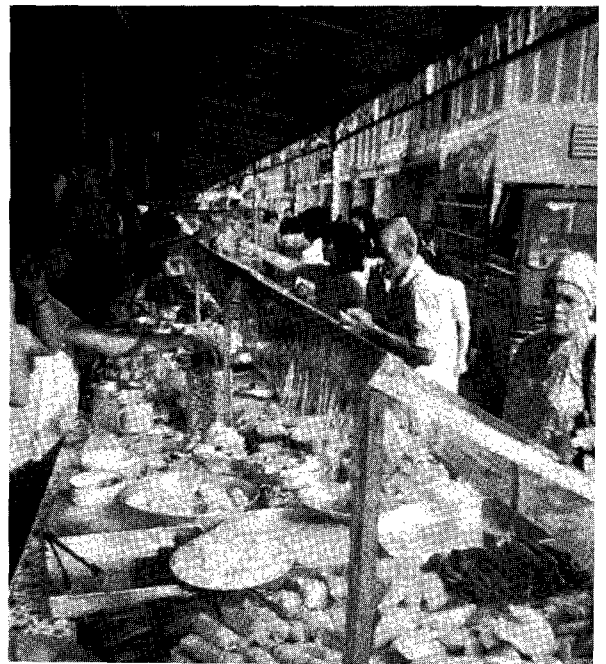
—서울에서 개최된 「퍼브릭·악셈틴스」會議 때 韓國의 公害운동가들은 45%나 남아도는 전력사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력관계자들은 “예비전력은 상당량 있지만 工業化 진전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며, 또한 民生用 전력도 전기운동화 등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생활수준으로 말하면 超고층아파트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난방연료도 연탄으로만 감당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과 도시가스의 정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臺灣도 전력소비에 의존한 에너지소비량이 38%정도로 일본과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기후, 풍토의 차이로 에너지수요의 패턴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목욕탕 같은 것도 남쪽나라에서는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싱가폴의 노점.



남쪽나라에서는 냉방수요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日本の 경우는 쿨러를 사용하므로 해서 전력 수요의 피크는 여름이 되는 셈이지만 臺灣, 홍콩, 싱가포르도 이 냉방수요량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는 NIES 여러나라도 각기 다른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성공리에 幕을 내린 서울올림픽에서 특별히 돋보인 것은 韓國의 對中國, 對東歐圈 및 對蘇聯에의 접촉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對美一邊倒에서 벗어나 이들 나라들과의 상거래를 넓히려는 뜻이 아닐까요...

올림픽을 개최하기 까지에는 韓國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의 스타디움 건설정도는 自國제품으로 충족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韓國政府는 적극적으로 東歐圈 나라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을 위한 外交的 수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東歐圈이나 蘇聯이 경제적으로 당장에 美國을 대치하는 시장구실을 하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 中國을 포함해서 커다란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對北韓을 의식한다는 견지에서 中國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中國이 北韓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도록」 壓力을 가하게 될테니까요...

이렇듯 韓國은 여러 각도에서 사려깊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南北문제가 아닌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韓國, 臺灣의 GNP는 2천5백~4천\$, 일본은 2만\$ 가깝습니다만 실제로 이 두 나라에 가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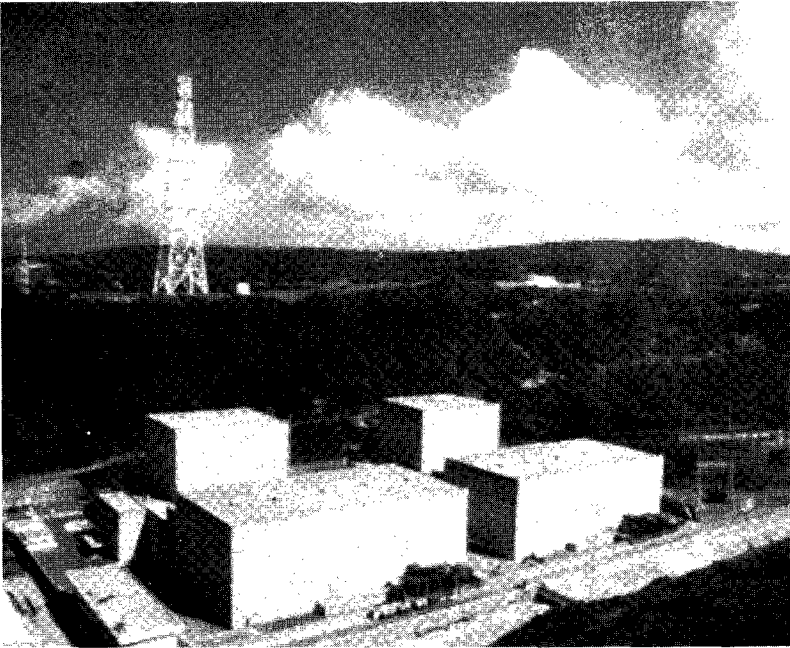
텔레비전이 있는가 하면, 냉장고, 세탁기, 자가용 등 일본사람의 생활과 별로 다를바가 없

▼한국의 올림픽 선수촌.



▼전형적인 도시국가 홍콩.





▲대만의 金山 原子力발전소 전경.



▲ 한국의 가면극.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하고 있다.

입니다.

日本도 1960년대 초기에는 “소비혁명”이라고 해서 전기제품이 도입됨으로써 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한 현상이 바야흐로 그곳에서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GNP만 비교한다면 낮은 수준에 있지만 생활실감에서 말한다면 日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1만\$ 이하 되니까요...

—生活實感에서 본다면 물가가 싸니까 오히려 높은 수준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에너지자원이 빈곤한 나라들, NIES에 日本도 포함한 아시아의 다섯마리 龍이 세계경제를 주름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日本을 포함한 아시아 NIES는 오히려 자원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게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철저히 「코스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원, 자재를 사용해서 가장 값싸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노력한거죠.

日本의 고도성장기에는 石炭에서 石油로 옮겨갔습니다. 流體化혁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石油값이 실질적으로 인하되므로 해서 流體化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자원의 보호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日本이 선택한 길은 당시로서는 가장 값싼 石油의 도입이었습니다. 값싼 石油을 수입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것, 말하면 이것이 日本이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도 기본적으로 日本이 선택했던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日本이나 아시아 NIES 여러 나라는 에너지를 비롯한 資源不足의 어려움이



◀ 싱가포르의 시가광경.



▲ 한국에서의 연탄수송 광경.

오히려 공업화를 촉진하는 용수철 구실을 해온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原子力발전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위기감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美國은 原子力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만큼 선택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은 도시 국가이니까 우선 접어둔다치고 日本, 韓國, 臺灣의 경우는 에너지자원의 「코스트」에 관해서 매우 신경질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은 당연하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韓國이나 臺灣에서 지금까지의 권위주 위적 정부형태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이제까지 취해온 「과워맨스」를 그대로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韓國으로 말하면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것이 최근 몇년동안 절실한 테마였지만, 올림픽

을 성공리에 마치고 보다더 새로운 비약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부추겨줄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은 韓國이나 臺灣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값싼 石油를 쓰고 있는 狀況아래서 새로운 에너지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 못하고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면 일본은 가장 새로운 에너지개발을 위해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그대로 본뜰 수는 없겠지만 아시아 NIES도 광범위하게 에너지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과연 앞잡아 볼 수 없는 아시아小龍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註〉 藤崎成詔(후지사끼 시게아끼)씨는 1953년 日本 후쿠시마 태생으로 아시아경제연구소 종합연구부 연구원, 경제발전론, 자원·환경의 경제학 전공. 와세다大學院에서 '80년 동연구소로, 그리고 해외파견원으로 미국 워싱턴大學 유학한 바 있음.